“광주 ‘민주화 성지’ 표현 이유로 10개월간 핍박받아”

촛불집회 페북 삭제 지시…강인철 전 광주경찰청장 인터뷰

“경찰 고위직마저도 탄압받는데 국민은 어떻겠나”

“자연스럽게 처리 지시 받아…국정조사 응할 용의”

이철성 청장 삭제 지시 강력 부인…광주청 직원들 “어이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SNS 글을 바로 내리면 이상하니,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라’고 해 광주경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글을 삭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현 중앙경찰학교장)은 7일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화제의 페북 게시물 경찰청장 삭제 지시 의혹’ 〈광주일보 2016년 11월21일자 6면〉과 관련, 그 전모를 털어놨다. 강 전 청장은 “이 청장이 그 때,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예전 어떤 사례를 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대한민국 ‘민주화 성지’를 폄훼하는 이런 사람이 새 정부의 경찰청장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저도 나름 경찰 고위직인데, SNS에 직원들이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10개월 가까이 핍박을 받고 있다. 적당히 해야지.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라며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그는 “경찰 고위직마저도 ‘민주화 성지’라는 문장 하나로 이렇게 당하는 데, 국민들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이런 사람이 경찰청장을 하면 안 된다. 너무 억울해서 국정조사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이후 좌천성 인사는 물론 집중적인 감찰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은 “당시 SNS사건 이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조치를 당했다. 희망지도 안 받고 발령을 내 처음에는 안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승진 후 초임이 가는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강 전 청장은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감찰 등 찍어내기를 위한 공격이 이어졌다고 한다.

강 전 청장은 “지난 6월 셋째 주부터 5주간 집중적인 감찰이 이뤄졌다”면서 “감찰을 통해 밝혀진 내용도 ▲광주청장 시절 절차에 따라 카니발 자동차 내 시트 바꾼 것 ▲기존대로 경찰학교 침구류 9세트 완비 및 딸기(30만원), 참외(45만원) 학생들에게 제공 한 것(이상 공금 사적 사용 등) ▲현 경찰학교로 옮긴 직후 전 경기청 직원들과 수원에서 송별식 겸 점심식사를 한 것(근무지 이탈) 등 기존 관례에 따른 4가지 뿐이며, 무슨 통닭집 관련된 것도 있는 데 제가 닭 장사도 아니고 어이가 없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이와 함께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경찰 내부에선(이 청장이) 경남지방경찰청장(2013~2014년)을 지낼 때 봉하마을 경호 를 맡은 인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권양숙 여사와도 교분이 있었고, 그 영향이 현 정부에도 미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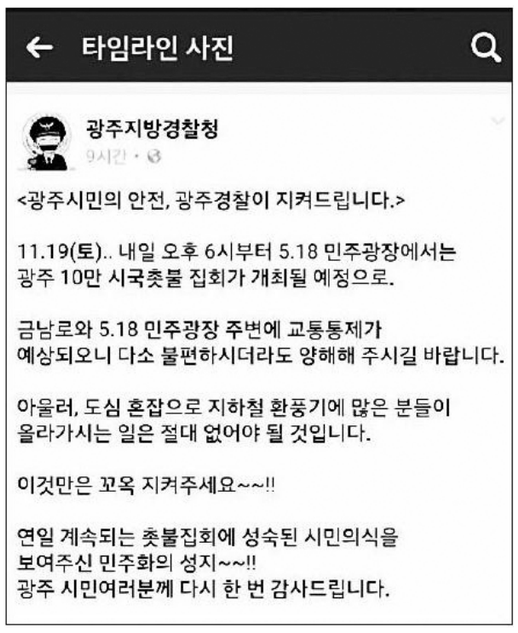
하지만, 이 같은 강 전 청장의 ‘SNS글 삭제 지시’ 주장 등에 대해 이철성 청장은 공식입장 등을 통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전청장과 함께 근무했던 광주경찰청 직원들은 이 청장의 공식 입장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직원은 “당시(2016년 11월 21일) 광주일보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삭제 지시 의혹을 보도한 직후 직원들 사이에선 어떻게 회의내용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됐는 지 신기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앞으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인데, 경찰 총수라면 최소한 자신의 양심까지는 속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일보는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을 통해 통화를 요청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공식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삭제한 게시물.

세월호 화물칸서 철근 다량 발견 침몰 원인 지목 속 양·무게 관심

세월호 화물칸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이 다량 발견됐다. 과적이 침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상황에서 세월호에 실린 철근의 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세월호 화물칸 D 데크에서 철근 뭉치가 발견돼 작업자들이 이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에서 나온 철근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길이 8m짜리로, 화물칸에서 철근을 40~50개씩 묶어 밖으로 빼내고 있다.

수습본부 관계자는 “D데크 안에 쌓인 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철근이 보여 이를 묶어 밖으로 꺼내고 있다”며 “계속 철근을 꺼내는 중이라 정확한 철근의 양과 무게 등은 지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습본부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1.1t의 철근을 세월호에서 빼냈다고 밝혔다.

다만 철근의 무게는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임시로 측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밀 계측이 필요하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앞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세월호 침몰원인으로 무리한 증축, 조타수의 조타 미숙과 함께 과적이 꼽혔다.

무리한 증축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매우 나빠진 세월호가 운항 중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었고, 제대로 묶이지 않은 화물이 쏠려 기울기가 커지면서 침수, 전복, 침몰로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차량 등 다양한 화물이 세월호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화물칸에 실린 철근을 두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음주단속 예고에도…광주경찰, 간 큰 운전자들 3명 적발

경찰이 주말 낮 피서지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음에도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6일 점심 직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피서지를 오가는 길목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지점은 동구 증심사 진입로·서구 서창 백마교차로·남구 빛고을CC 교차로·북구 무등산장 진입로·광산구 송산 유원지 진입로 등이었다.

6일 광산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동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서객의 면허가 정지됐다. 남구에서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휴가객이 단속됐다.

/박진표기자 lucky@

사랑의 헌혈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행사에 참가한 북구청 공무원들이 단체로 헌혈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日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잇단 선고 주목

광주지법 오늘·11일 1심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다룬 영화 ‘군함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잇따라 선고된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4호에서 3차 소송 당사자인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 할머니의 유족 이경자(74) 할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배상을, 최 할머니 유족 이씨는 3000만원을 청구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들어서 첫 선고 건이 될 전망이다,

오는 11일 1시 50분 광주지법 403호에서는 2차 소송 당사자인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진행된다.

이들 피해자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장 부실 등을 이유로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3년 6개월만에 1심 판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 할머니 상당수가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병세가 악화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시민모임은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을 활동을 지원했다. 1차 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손님이 실수로 낸 500만원 수표 슬쩍한 업주 경찰서행

쌍나팔

○…참기름 1병을 산 손님이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참기름 가게 업주가 경찰서행.

○…7일 부산 중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0)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 이모(67)씨에게 8000원짜리 참기름 1병을 판매한 뒤 500만원짜리 수표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10만원권으로 착각해 거스름돈 9만2000원을 내줬다는 것.

○…김씨는 은행 입금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이 아닌 500만원권 수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경찰은 수표 뒷면에 김씨가 날짜와 손님 이름 등을 적은 메모를 확인한 끝에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2029	1	나주시 예향로3793, 4층 406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125,000,000 125,000,000	
	2	나주시 예향로3793, 4층 408호[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125,000,000 125,000,000	
2017타경 4254	1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80 영진아파트 2층 202호 78.57㎡	아파트	63,000,000 63,000,000	
2017타경 4629	1	남구 월산로132번길9, 101동 11층 1114호 79.74㎡	아파트	116,000,000 116,000,000	
	2	서구 운천로32번길7, 502동 2층 201호 [금호동,금호시영일반분양아파트] 59.82㎡	아파트	111,000,000 111,000,000	
	3	서구 월드컵4강로22, 101동 1층 102호 [화정동,현대아파트] 53.46㎡	아파트	105,000,000 105,000,000	
2017타경 4865	1	동구 지산동 315-1 삼성아파트 2동 1층 102호 151.32㎡	아파트	255,000,000 255,000,000	
2017타경 5820	1	북구 연제동 1109 연제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2동 13층 1303호 84.6216㎡	아파트	260,000,000 260,000,000	
2017타경 60803	1	서구 금호운천길83, 107동 3층 301호 [쌍촌동,상무푸르지오] 131.8918㎡	아파트	480,000,000 48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 1248	1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31-10 480㎡ 곡성군 옥과면 리문5길 9-4 1층191.73㎡ 2층171.19㎡ 제시외 객실방 등 34.9㎡	대 주택,근린시설	213,461,900 213,461,9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6타경 21429	1	나주시 삼영동 87-1 삼영연립주택 2층 205호 59.43㎡	다세대	31,000,000 31,000,000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17307	1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92-5 716㎡[현황주거나지]	답	143,200,000 143,200,000	2017타경8058[중복]
2016타경 22033	1	광산구 명화동 556-6 423㎡[현황전및도로.제시외수목[감정가2,900,000원]포함[감나무등]]	대	59,582,000 59,582,000	일부건조장약9.9㎡매각제외.매각대상아닌건물소재
	2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661-3 2376㎡	답	45,856,800 45,856,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660-20 1867㎡	답	37,153,300 37,153,3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66057	1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245 2522㎡[잔디포함]	전	72,006,000 72,00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733	1	북구 장등동 산285-1 14986㎡[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임야	97,409,000 97,409,000	김성옥지분1/4전부.분묘소재
2017타경 1149	1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015-11 1453㎡	답	18,017,200 18,017,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1705	1	광산구 고룡동 422 2387㎡	답	79,248,400 79,248,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2951	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43-83 720㎡	전	33,900,000 33,9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3169	1	광산구 박호동 산73 43636㎡[토지경계상에 분묘소재하나정확한경계측량요]	임야	191,998,400 191,998,400	
2017타경 3527	1	장성군 남면 월정리 산50 2678㎡[현황일부전]	임야	206,206,000 206,206,000	분묘여러기소재
	2	장성군 남면 마령리 산154 1798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일부가고속철도에저촉]	임야	68,346,800 68,346,800	
2017타경 5608	1	곡성군 삼기면 노동리 364 410㎡	답	4,920,000 4,9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매각제외
	2	곡성군 삼기면 청계리 125 159㎡	대	3,021,000 3,021,000	수목매각제외
	3	동소 139-1 255㎡[김건지분1/2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전	2,295,000 2,29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매각제외
2017타경 5929	1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643-23 1471㎡[유광종지분660/1471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답	7,260,000 7,2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일부창고매각제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 6410	1	서구 시청로13, 3층 306호 [치평동,상무리채2] 27.9362㎡	근린시설	87,000,000 87,000,000	
2017타경 60391	1	서구 군분2로54, 지하1층 29에이호 [화정동,금호월드] 55.80㎡	근린시설	118,000,000 118,000,000	
	2	서구 군분2로54, 지하1층 29비호 [화정동,금호월드] 55.80㎡	근린시설	118,000,000 118,000,000	
[자동차,중기]					
2016타경 22941	1	사용본거지:화성시남양읍역골로23-2풍남오피스텔212호[남양리]등록번호:경기91바9443 차명:엠뱅크 차량운반트럭 연식:2011	자동차	35,000,000 35,000,000	보관장소:광산구도천동143-13㈜수완컨테이너하우스
2017타경 62588	1	사용본거지: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32, 203호 등록번호:78버5294 차명:그랜드 카니발 연식:2010	자동차	8,000,000 8,000,000	보관장소: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
[기타]					
2016타경 22989	1	남구 봉선동 163-13 107㎡[현황주차장]	도로	43,032,440	일괄매각.주차장
		동소 163-17 8㎡[현황주차장]	도로	43,032,440	
2017타경 399	1	북구 오치동 956-2 222.3㎡	대	212,598,000 212,598,0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북구 오산정길7번길31 1층104.69㎡ 2층76.40㎡[주택] 3층10.85㎡[창고] 부속건물 창고및변소6.0㎡[현황멸실] 변소1.08㎡ 제시외 창고 등 106.3㎡[무단증축[116.16㎡]으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4,119,000원부과예정[2017.7.17].위반사항시정될때까지반복하여이행강제금부과,1년에2회부과대상]	점포및주택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2258	1	담양군 용면 통천리 114 354㎡	대	64,236,000	일괄매각
		동소 114 96㎡	창고시설	64,236,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8. 22.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8. 29.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8. 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형남곤